

清上蠲痛湯, 桂枝茯苓湯의 臨床

李 錫 熙



一. 加味清上蠲痛湯

1. 一切頭痛 新久左右 皆神效

• 清上蠲痛湯 · 黃芩 6g 蒼朮 羌活 獨活 防風 川芎 當歸 白芷 麥門冬 各4g 蔓荊子 甘菊 各2g 細辛 甘草 1 2g 薑三片 以上의 本方에 生地黃 黃芪 葛根 柴胡 山查肉 各4g 枳實 神曲炒 麥芽炒 砂仁 各2g式 九種을 加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症狀이 있

을 때는 別途 追加 用藥한다

- (1) 氣血兩虛 抵血壓 老弱者에게는 人蔘 白芍藥 各5g式을 追加한다
- (2) 高血壓 便秘 浮腫等 實症에는 木通 4g 瞿麥 3g 黃連 1g을 追加
- (3) 神經衰弱 不眠症에는 酸棗仁炒 5g 龍眼肉 3g 遠志 2g式을 追加

2. 處方의 由來

이 方文은 本人의 外祖父께서 一切 頭痛에 用藥하여 名聲이 높던 神效한 處方이다 本人이 1960년 1월 2일 한약업사 시험에 合格하여 10餘日間 開業준비를 하여 60년 1월 13일경 開業할 때 당시에 經驗方(自筆)로 쓴 책 1권과 한약장을 傳受하였다. 그 經驗方 中에서 가장 有效하고 가장 많은 사람을 救한 것이 바로 加味清上蠲痛湯이다 이 는 百中九十五는 有效한 것으로 경험을 통해 自信할 수 있다

위와같이 本人이 38年間 營業해 오면서 每年最少限 十餘名 以上을 이 藥으로 頭痛 患者를 救한 經驗方인 것이다 (38年間 × 每年 10名式 두통환자 = 380名)

이 清上蠲痛湯은 大多數의 韓方家들이 頭痛에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加味清上蠲痛湯은 위의 清上蠲痛湯에 生地黃 等 九種을 加味하여 用藥의 범위를 넓히고 보다 有益하고 有用하게 하였으며 胃를 편하게 한 것이 特殊하고 前記한 바와같이 追加方文을 活用하면 安全하고 效能을 더욱 더하게 하는 것이다.

注意할 것은 虛暈이甚한 老弱者, 또는 妊娠, 産母, 下泄이甚한 사람, 甚한 低血壓인 사람, 13歲以下의 어린이에게는 不當하고 用藥해서는 아니된다

治驗事例는 前述한 바와같이 數百名以上을 經驗하였으나 其中 특별하게 생각나는 몇 사람을 記述하는 바이다

〈事例1〉 33年前 現在의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內 바닷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53세의 귀부인이었다 남편이 철도청 공무원인 崔氏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며 부인의 姓名은 묻지도 않았다. 그는 20代初에 결혼한 후로 두통이 생겨 30餘年間 頭痛으로 苦生을 했기 때문에 좋다는 藥은 안쓴 藥이 없고 잘 고친다는 병원도 안가본 곳이 없다고 하였다 당시 부산에는 종합병원인 교통병원이 있었다. 그 병원에서 수년간 治療도 받았고 때로는 入院하여 치료해 본적도 있다고 하였다

(1) 主症狀 차림새는 귀부인이었으나 오랜 病苦로 몹시 不便한 모습이었고 不眠症, 便秘, 위궤양 等도 있어서 눈에 충혈이 있고 눈뿌리가 아린다고 하며 眼科의 눈치료와 胃病 치료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2) 用藥 . 前述한 加味(九種)한 淸上鑷痛湯에 酸召仁 5g 龍眼肉 3g 遠志 2g을 追加하여 10貼을 服藥한 後 有效하여 계속 2제를 더 복용한 후 그는 完治되었다 그분의 소문이 당시의 동래군 일원에 전파되어 수많은 頭痛 患者가 찾아와서 이 藥을 지어갔다

〈事例2〉 경남 김해시 삼정동 거주 정영(당시 45세)부인

1996年 12月 神經性頭痛으로 많은 苦生을 받고 있어 게보린, 뇌선, 사리돈 등을 계속 복용하였고 때로는 병원치료도 받았으나 完治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1) 主症狀 · 甚한 頭痛, 설사, 변비, 소화불량, 腰痛, 低血壓, 不眠症, 蒼白하고 피곤한 형상이었다.

(2) 用藥 : 加味鑷痛湯에 人蔘 白芍藥 各5g 酸召仁 5g 龍眼肉 3g 遠志 2g을 追加하여 用藥한 後 2제를 더 계속 服藥한 後 完治되었다

〈事例3〉 경남 김해시 봉황동 거주 하○순 (당시 40세)부인

1997年 3월경 찾아온 분인데 20餘年間 편두통으로 苦痛의 나날을 보냈다고 하였다.

(1) 主症狀 · 피로, 왼손으로 항상 이마를 잡고 있었다. 腰痛, 便秘, 不眠症이 있어서 계속 신약을 먹었던 탓으로 胃와 腸이 弱해져 消化不良 입맛도 없고 때때로 不眠症도 있다고 하였다

(2) 用藥 . 加味鑷痛湯에 酸召仁 5g 龍眼肉 3g 遠志 2g을 追加하여 두제 복용한 後

完治 되었다

〈事例4〉 울산광역시 언양읍 서부리 187번지 권○화 (33세) 부인

8年前 妊娠中 甚한 下血이 있어서 入院치료 하였으나 其後로 빈혈이 甚하고 頭痛이 生겨 苦生中이었다

(1) 主症狀 · 빈혈, 低血壓, 피로, 순환장애, 手足이 저리고 生理의 量도 半으로 감소하고 때로는 精神이 몽롱하고 멍해지는 경우도 있고 病院에서는 前날에는 빈혈성 두통이라고 하였으나 요즘에는 神經性頭痛이라고 한다함. 병원약을 먹으면 잠이 많이 온다고 함.

(2) 用藥 : 最近 98年 5月 12日 처음 와서 加味蠲痛湯에 人蔘 白芍藥 各5g式을 追加하여 用藥하여 有效한바 지난 7월 10일 2차에 이어 8月27日 마지막 세번째 藥을 지어갔다. 두제 복약후 완치 되었으나 본인이 한제 더 願해서 후일을 爲해 지어갔다.

二. 加味桂枝茯苓湯(丸)

1. 處方과 由來

桂枝茯苓丸 (桂枝, 赤茯苓, 赤芍藥, 桃仁, 牡丹皮) 五種을 各 同量을 混合製丸한 것인데 本人의 先親께서 白朮 香附子, 牡蠣 三種을 桂枝 等과 同量으로 追加하여 製丸해두고 當時에는 主로 婦人科用藥 또는 不妊症의 治療用藥으로 쓰던것을 本人이 傳受하여 營業해오면서 金銀花 黃芩 五味子の 三種을 各各 桂枝 等の 半量으로 追加하여 用藥하는 家傳特殊方文이다 卽 加味桂枝茯苓湯(丸)의 處方은 桂枝 赤茯苓, 赤芍藥 桃仁 牡丹皮 白朮 香附子 牡蠣 各同量으로하고 金銀花 黃芩 五味子 三種은 위 桂枝 等の 半量式을 混合 製粉한 후(米糊丸) 梧子大로 製丸 日三服 每食後로 30~40丸式 溫水로 服用한다 10餘年前까지도 主로 丸으로 用藥했으나 오늘에는 99.9% 以上이 湯劑로 다려서 用藥(投藥) 한다. 湯劑 또는 貼藥으로 할 때는 每貼마다 桂枝等 八種은 4g式으로 하고 本人이 追加한 金銀花 等 三種은 各2g式을 加한다

• 參考 : 桂枝茯苓丸에 對하여 比較的 明確한 解說은 韓方家 石履慶者 大韓韓醫師 試驗準備書를 보면 理解하기가 쉽다 그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桂枝茯苓丸은 桃核承氣湯中の 大黃 芒硝를 빼고 代身 牡丹皮 茯苓 芍藥을 加한 것이고 其用藥의 應用은 桃核承氣湯用藥의 證과 흡사하되 便秘가 極甚하지 않고 多少緩和的이며 下腹部의 壓痛이 있어도 腫塊같은 感觸 또한 急結이 아닌 경우에 適合한 藥

이라고 하였다

作用과 適應症은 緩和 鎮痛 消炎 利水로 子宮內膜炎 子宮實質炎 子宮周圍炎 卵巢炎 嗽叭營炎 月經不順 流産後 出血不止, 子宮筋腫 腹膜炎 打撲傷 痔疾 辜丸炎 便秘 等に 要藥이라고 하였다.

本人이 經驗한 加味桂枝茯苓湯(丸)의 優秀한 效驗

1. 下腹部의 冷症 體質的 寒冷體로 便秘를 兼한 경우 有效하고
2. 女性의 子宮과 其附屬器(生殖器等)의 炎症을 解消하는데 有效하고
3. 子宮疾患으로 因한 腰痛과 瘀血, 打撲으로 因한 腰痛 또는 坐骨神經痛 下肢寒冷痛 等으로 五積散이 合當치 못할 때 有效하고
4. 肋間神經痛 乾性肋膜炎 心虛症中の 神經性心臟症 慢性肝炎에도 有效하였다
5. 子宮의 甚한 炎症 子宮後屈症 下腹部의 寒冷, 嗽叭氣管炎等의 原因으로 不妊인 경우 受胎할 수 있는 藥으로 有效하였다

×其他 畜膿증 慢性鼻炎等에도 有效하였으나 自信있게 권할 수는 없다 但 이 약은 腸이 弱하여 吸收力이 없거나 平素 泄瀉를 잘하거나 胃酸過多 胃潰瘍 胃下垂等의 症을 겸한 患者에게는 1日 1回로 줄이고 服藥의 量도 半으로 하여 服用해야 한다.

2. 優秀한 效驗實例

〈其一例〉 이귀영 부인, 당시 경남 김해시 생림면 거주

(1) 용모와 발병원인 : 30餘年前 婦人李氏의 용모는 처참한 참상이었다. 肝臟病으로 三年餘 病院치료와 看病을 해오던 男便의 死亡과 生活苦로 顔色은 초췌하고 눈빛은 촛 점이 흐리고 氣力이 없고 下肢寒痛으로 步行마저 어려워 이를 악물고 겨우 다리를 들어 옮기면서 들어와서 첫마디가 살려 달라는 것이다. 山에서 나무짐을 머리에 이고 비탈길을 내려오다 넘어져 굴러서 큰 돌에 가슴을 부딪쳐 제대로 치료를 못해 乾性肋膜炎이 생겨 호흡이 不便하고 기침이 甚하여 편히 누워 잠을 잘 수 없고 慢性肝炎은 肝臟病(黃疸)로 死亡한 男便으로부터 傳染된 것으로 本人은 추정하였다. 便秘가 甚하다 한 것은 가난과 病苦로 먹지 못해 생긴 것이며 下肢가 시리고 터질듯 痛症이 있어 苦痛받는 것은 딸 둘이 있었는데 둘 다같이 6~7月 炎天에 해산하여 조리도 못하고 갑갑하여 산 후 3~4일 후부터 다리를 냉수에 담가 씻고 찬바닥에 노출하여 생긴 病이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步行치 못하니 더욱 苦痛스럽다는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苦痛으로 生을 포기한 모습이었고 마지막 本人이 지어주는 藥을 한번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며

▣ 청상건통탕, 계지복령탕의 임상

애원하고 그칠줄 모르고 흘리는 하염없는 눈물, 흐느끼며 살려 달라던 처절한 그의 호소에 본인은 實로 당황하였다. 나는 조용히 그를 진정시켜 重病이라 한약으로는 이미 때가 늦고 時急을 요하니 病院으로 가시라고 타일렀으나 막무가네 물러서지 않았다. 그순간 본인은 머리속에 加味桂枝茯苓丸을 주어서 보내야겠다는 生覺이 났다. 當時 本人의 加味桂枝茯苓丸에는 金銀花는 處方에 없었다. 이 婦人의 乾性肋膜炎의 退治를 위하여 金銀花를 追加하여 用藥하게된때 부터 桂枝 等 11種의 藥을 混合하여 쓰게된 것이다

(2) 主症狀 病院에서 診斷받고 治療한 病名이 乾性肋膜炎 慢性肝炎 下肢神經痛 等이며 其外 甚한 便秘症과 下肢痛은 寒冷痛이며 기침을 하면 가슴이 맞히고 胸脇痛이 심하여 누워 잠잘 수 없고 손바닥을 가슴에 붙이고 呼吸이 不便하였고 步行이 어려워 팔로 한쪽 下肢를 끌고 藥房에 올라왔다.

(3) 用藥 : 製丸해두고 판매하는 加味桂枝茯苓丸이 있었으나 前述한 바와같이 이 婦人에게는 金銀花를 加 하는 것이 適合하다고 判斷하여 前記處方대로 11種의 藥을 貼藥으로 10貼을 混合하여 주었다. 부인은 눈물을 거두고 18세 아들이 취업이 되어 月給을 받으면 꼭 약값을 주겠다고 하였다

(4) 經過 10餘日後 그는 完全 다른 사람이 되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처음에 왔을 때는 가슴에 손을 붙이고 기침이 나서 견디기 어려운 모습이었고 다리를 끌고 이를 악물고 약방에 들어 왔으나 지금은 힘들이지 않고 들어와서 공손하게 인사하였다. 그의 顏色은 生氣가 들고 눈빛도 맑고 連發하던 기침도 찌뿌린 얼굴도 펴고 것처럼 시리고 苦痛스러워하던 표정은 어느새 解消되었다. 본인은 놀라웠다. 약관 24세때 應試하여 1960년 1월 6일 合格하여 月餘後부터 20餘年 가까이 영업해왔으나 이처럼 벽찬 보람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生命을 낳음과 病을 고칠 수 있도록 藥을 쓴 경우는 수없이 많지만 이처럼 처참한 生命을 救한 보람을 어찌 筆舌로 表現하리오. 그때부터 이 處方은 本人第一의 特殊藥方文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넓게 活用해 오고 있다.

2차엔 1차 때의 方文대로 20貼 1제를 지어서 주었다. 그리고 當時에 肝臟藥으로 좋다는 우루사의 선전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루사도 겸용하도록 권하였다. 月餘後 다시 찾아왔을때는 표정과 顏色이 건강해 보였고 것처럼甚하던 便秘도 解消되어 무엇이든 먹고싶고 무슨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不當함을 일러주고 그로부터 金銀花를 加味(追加)하여 製丸하여 3제를 계속 더 服藥한 後 完快되었고 봄이면 山藥도 뜯어오고 여름이면 山아래 밭에 수박이며 오이도 가꾸어 가져오고 가을이면 감, 밤

등을 가져오고 하였다. 이 소문이 遠近에 알려지고 오래도록 病苦로 신음하는 患者가 있다하면 이 부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自己의 病苦를 고친 事實을 알려주어 한 때 本人을 찾아오는 손님中 半以上이 이 加味桂枝茯苓丸을 찾아오는 사람이었다 이 藥 4제半을 주고 받은 收益은 진실로 헤일수가 없다 그는 平生 限 많은 人生을 苦生하며 살다가 5年前 이 世上을 떠나셨다 나는至今도 그의 아련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其 二例〉 김분선 부인 당시 36세, 부산 거제동 철도관사 거주

(1) 용모와 내방사유 :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인상좋은 美人이었다. 19세때 결혼하여 36세에 이르도록 17년간 受胎하지 못해 결국 시가에서 쫓겨나서 위의 주소지에 셋방을 얻어 毛織會社에 女工으로 다니면서 시어른들 몰래 男便이 때때로 찾아온다는 것이다 産婦人科에서 嗽叭管이 막혔다고 空氣로 뚫기도 하고 子宮內膜炎 子宮後屈의 症狀도 있다고 하여 이곳저곳 治療하였고 韓藥도 많이 服藥했다고 하였다 17년간 굶도 세번이나 해봤고 안해본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함께 일하고 있는 분의 親知가 本人의 加味桂枝茯苓丸 1제를 服藥한후 受妊한 事實이 있어 찾아와서 애기놓는 丸藥을 求하고자 왔다고 하였다

(2) 主症狀 生理가 건너뛰고 量이 적고 色이 탁하고 黑濁色으로 묻어 나오며 生理中에는 머리 가슴 허리 복통 등이 있고 平素에도 子宮의 分泌物(冷)이 많고 허리가 항상 不便하며 변비도 심하고 下肢가 시리고 무겁고 苦痛스럽다는 것이었다

(3) 用藥 加味桂枝茯苓丸을 每月 1제씩 一日 三回服 복용후 허리가 편해지고 生理時의 胸痛 不快感 冷 便秘 下肢가 시리고 苦痛스러운 것 生理의 量과 色 等도 매우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孕胎하지 못해 애태우며 자탄하였다

(4) 經過 · 그 後 婦人은 二個月間 더 계속 服藥한 後 受胎하였고 열달을 지나 귀여운 玉童子를 분만하였다 그 아이가 8세때 초등학교 입학후에도 다녀갔으나 男便의 전근으로 서울로 옮겨간 이후로는 소식이 없다 그러나 그 부인을 보고 또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亦是 加味桂枝茯苓丸 또는 湯을 복용후 受妊하여 태어난 아이들도 7~8명에 이른다. 연산동 박묘경, 대신동의 주환, 사상의 이명준, 김해의 김민영 등이 그러하다

〈其四例〉 권선자 부인 (당시 32세), 부산 수영구 망미동 현재까지 거주

(1) 용모와 발병원인 . 26세때 첫아이를 더운철에 분만하여 더위에 지쳐서 타올을 냉수에 적셔 下肢를 시원하게 하고 냉장고의 冷水도 마시고 수박 등 찬 과실도 먹었다고 하였다 그것이 病因이 되어 下肢가 시리고 때로는 붓고, 허리도 不便하고 얼굴에 기미

■ 청상건통탕, 계지복령탕의 임상

가 끼고 밝지 못하며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차다고 하며 有名病院의 치료도 받았고 韓藥도 많이 먹었으나 점차 惡化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2) 主症狀 · 下肢가 붓고 차며 복부도 寒冷하며 최근에는 腰痛까지 甚하여 바로 앉지 못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것, 애기보는 것 등이 不便하며 腹部가 寒冷하여 찬음식을 먹거나 마시면 不便하고 때때로 便秘도 생기고 子宮冷症도 甚하다고 하였다

(3) 用藥 加味桂枝茯苓丸을 3個月間 三劑 服用後 위 症狀들이 大體로 호전 되었으나 下肢寒冷痛이 完全치 못하였다

(4) 經過 · 계속하여 위의 藥을 湯劑로 하여 每月 1劑式 3劑를 더 服藥한 後 下肢의 시리고 冷痛 등이 消滅되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단골로 찾아 오고 있다

(학술위원 경남 김해시 전하동 43-12 세종당 한약방 ☎ 0525-336-4664)

상식 메모

잠잘 때는 반듯이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좋으니 이러하면 心氣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어나면 몸을 펴야 하니 이러면 精神이 散漫하지 않기 때문이다. - 活人書 -